녹雨당……고산문학축제 열린다

16·17·23일
해남 고산유적지 일원

오는 16일과 17일, 23일 모두 3일에 걸쳐 해남문화예술회관과 고산유적지 일원에서 열리는 고산문학축제는 윤선도의 선비정신을 선양하고 해남의 문화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진은 2014년 고산문학축제 모습. 〈해남문화원 제공〉

인문학 콘서트·문화유적답사·청소년 백일장 등

조선 시가문학의 대가 윤선도의 선비정신 기려

해남 녹우당 뜨락에 은행나무잎이 노랗게 물들어간다. 바람이 불면 흡사 노란 금화가 떨어져 내릴 것 같다.

녹우당은 해남윤씨 고택을 상징한다. 고산(孤山) 윤선도(1587-1671)의 4대 조부인 효정이 연동에 터를 정하면서 지은 건물이다. 지금은 해남윤씨 종가 전체를 녹우당으로 부르고 있으나 원래는 사랑채 이름이 녹우당이다.

종택의 사랑채는 윤선도가 수원에 살 때 봉림대군의 스승이었던 인연을 계기로 효종이 하사했다. 1668(현종9)년 집의 일부를 헐어 이곳에까지 옮겨와 이축했다. 겹처마는 당시 궁궐의 회랑을 본뜬 것으로 해남 윤씨의 자부심을 드러낸다. 사랑채에 걸린 '녹우당(綠雨堂)' 현판은 윤두서(윤선도의 증손자)의 친구 옥동 이서의 친필이다.

조선 시가문학의 대가로 꼽히는 고산 윤선도의 문학세계를 기리는 문학축제가 열린다.

해남군과 해남문화원이 주최하고 고산문학축전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고산문학축제는 오는 16일과 17일, 23일 모두 3일에 걸쳐 해남문화예술회관과 녹우당을 비롯한 고산유적지 일원에서 열린다. 윤선도의 선비정신을 선양하고 해남의 문화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문학축제는 청소년 백일장, 시·서·화 백일장, 고산 세미나, 고산문학의 밤, 고산시가 낭송대회, 고산문학대상 시상식, 해남문화유적답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16일 첫 번째 행사로 고산 인문학콘서트가 열린다. 해남문화원 소강당에서(오후 3시) 개최되는 인문학콘서트는 올해 고산문학대상을 수상한 안상학(시부문), 이승은(시조부문) 시인이 최재희 해남공공도서관 북멘트와 함께 '시인의 삶과 시적세계'를 주제로 좌담회를 갖는다.

저녁(오후 7시)에는 해남유스호스텔 강당에서 열린시학회와 고산문학축전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고산학의 밤이 진행된다. 지역문화인과 서울 문인들이 참가해 시낭송을 비롯해 판소리, 가곡, 민요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17일(오전 9시)에는 해남문화유적답사가 계획돼 있다. 문학축전 참가자들이 대흥사(이동주시비), 땅끝(미황사), 고정희·김남주 생가 등을 둘러보며 해남에 깃든 문화를 체험한다.

오전 10시부터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6회 청소년 고산시가 낭송대회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윤선도 시가 중에서 좋아하는 작품을 외워 낭송하며 수상자들에게는 시상금이 수여된다.

고산문학대상 시상식은 오후 3시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개최된다. 시 부문 '그 사람은 돌아오고 나는 거기 없었네'의 안상학 시인, 시조 부문 '넬라 판타지아'의 이승은 시인에게 각각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고산 청소년 백일장과 고산 청소년 시·서·화 백일장은 23일(오전 10시) 녹우당에서 열린다.

고등학교 재학생을 재상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백일장은 운문(시, 시조)과 산문으로, 청소년 시·서·화 백일장은 글짓기(초·중-시, 산문), 그리기(초·중·고-상상화, 풍경화, 한국화), 서예(초·중·고- 붓글씨 쓰기)로 나눠 실시한다.사전 접수(hn5345@hanmail.net)는 21일까지다. 문의 061-533-5345.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고봉 기대승 선생 학술발표회

15~16일 월봉서원 등 … '주자문록' '초서간찰'도 공개

고봉선생선양위원회(회장 기용주)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은 15~16일 월봉서원 등에서 '제2회 고봉 기대승 선생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5일 월봉서원에서 각 지역 유림들의 문화교류 행사를 갖은 후 16일 오전 10시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학술발표회를 진행한다.

학술발표에서 전남대 김봉곤 교수와 이동건(대구 퇴계학회 이사장) 박사가 각각 '고봉 기대승의 강학활동과 문인집단 연구', '논사록을 통해 본 고봉의 도학정신'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봉곤 교수는 발표문에서 "기대승 선생은 기묘사림인 기준과 부친의 뜻을 이어 출사하기 전에도 학문적 명망이 높았다"며 "출사 이후에도 이황과 경연을 주도했으며, 서울과 지방에 많은 문인들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고봉선생이 편찬한 '주자문록'과 초서간찰 300여점을 번역한 '초서간찰'도 공개할 예정이다. 주자문록은 정유재란 때 왜인들이 수탈해 일본 내각문고에 소장해온 것으로 이번에 번역 발간하게 됐다. '초서간찰'은 고봉선생 종가에 전해온 편지 등 300여점을 번역하고 고봉선생의 학맥도를 추가해 실었다. 문의 062-234-2728 .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로또 당첨됐어요" '달동네 콤플렉스' 11월1일까지 동산아트홀

인생 역전을 위해 로또 당첨을 꿈꾸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달동네 콤플렉스'가 관객들을 찾아간다. 11월 1일까지(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3시·7시, 일요일 3시, 월요일 공연 없음)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작품의 배경은 달동네의 허름한 도서 대여점이다. 모태솔로인 '김득남'은 자신이 운영하는 도서 대여점에서 백수인 '탁태성', 인생 한 방을 노리는 '백인기'와 언제나 변함없는 하루를 시작한다.

어느 날 이들에게 '로또 당첨'이라는 행운이 찾아오고 세 사람은 저마다 새로운 삶을 꿈꾼다. 김득남은 솔로 탈출을, 태성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멋진 고백을, 인기는 화끈한 인생을 꿈꾸지만 복권이 사라져버리는데….

티켓 가격 전석 3만원.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문단 활성화·우수 문학작품 발굴

문예지 계간 '문학들' 창간 10주년

17일 5·18문화센터서 기념식

지역에서 발행되는 대표 문예지 계간 '문학들'(발행인 송광룡)이 오는 17일(오후 4시)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각계 인사와 전국의 문인, 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광주전남 지역에 종합문예지가 필요하다는 지역 문인들의 여망에 따라 지난 2005년 가을호로 창간된 '문학들'은 제호가 말해주듯 그동안 삶과 문학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편집 방향을 올곧게 지켜왔다. 또한 침체된 지역문단을 활성화하고 첨예한 문학담론을 제시해왔으며,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발굴 소개해 한국 문단의 주목받는 문예지로 성장해 왔다.

특히 광주라는 지역성을 새롭게 조명하면서도 '소수자들의 삶'과 같은 차별화된 기획 등으로 새로운 문예지의 방향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창간 1년 만에 문광부 우수문예지로 선정되는 등 중앙 문단에서도 주목받는 문예지로서의 위상을 갖추었다.

편집 주간을 맡고 있는 소설가 채희윤(광주여대) 교수는 "그동안 '문학들'을 사랑해 준 독자와 작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문학들'이 문예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문예운동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문의 010-2680-9426. /박성천기자skypark@r

2015 영·호남 교류 음악회 내일 금호아트홀

2015 영·호남 교류 음악회가 1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광주벨칸토성악아카데미(회장 구제창·사진)가 주최하는 행사로 전주 성악아카데미, 부산 성악아카데미, 대구 성악아카데미가 함께하는 무대다.

연주 레퍼토리는 '뱃노래', 오페라 '팔리아치',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아리아, '그대 향한 사랑', '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순간' 등 한국 가곡, 독일 예술가곡, 오페라 아리아, 영화음악, 뮤지컬 넘버를 포함,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출연진은 정별님, 김민희·김관식·차선영·신은선·임선아·윤영권씨 등이다.

1986년 성악아카데미로 활동을 시작한 광주벨칸토 성악아카데미는 지난 1994년 단체 이름을 변경했으며 지금까지 이탈리아 가곡의 밤, 성가곡과 예술가곡 등 다양한 주제로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다. 문의 010-3642-162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한회사 수호부동산 중개법인

(유) 수호 부동산 중개법인은 법원경매,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및 부동산컨설팅 등을 원 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며, 부동산 전문 중개법인체 입니다.

추 천 물 건

광주지방법원	2015타경 9057	근린시설
	2014타경 29078	숙박시설
	2014타경 30504	근린주택
	2014타경 30504	골프장
	2015타경2247	근린시설

* 광주지역 외 추천물건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

NPL 질권대출 · NPL 매입,매각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 전국최저금리!!! 전국최고 한도
• NPL 잔금 5.2% ~ 5.9% • 중도상환 無

유한회사 수호부동산 중개법인
사업자등록번호 464-88-00084 법인등록번호 200114-0058676
담당자 이수진 이 사 010-2170-3034
김태훈 본부장 010-4557-3034

NS종합건설㈜ 2015년 하반기(신입/경력) 채용공고

고객의 믿음을 받는 기업, 고객의 사랑을 받는 기업 NS종합건설에서 2015년 하반기 본사 및 각 현장의 신입/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부 서	분 야	인원	직종	직 급	경 력	업 무 내 용	근 무 지
현 장 (광양, 대불)	현장소장	○명	건축 / 토목	부장~임원	경력 10년 이상	특급 기술자	전라남도 동광양,삼호
	시공관리	○명		부장	경력 7년 이상(고급,중급)	현장 품질관리자	
		○명		차장~대리	경력 5년 이상(고급,중급)	현장 품질관리자	
		○명		대리~사원	경력 3년 이상(중급,초급)	현장 품질관리자	
	기계설비	○명		부장~과장	경력 5년 이상	아파트 신축현장 기계/전기관리	
	전기	○명		부장~과장	경력 5년 이상	아파트 신축현장 기계/전기관리	
	안전관리	○명		과장	경력 5년 이상	아파트 신축현장 안전관리	
빛그린 산업단지	공사관리	○명	토목	부장 이상	경력 10년 이상	토목현장 현장책임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전관리	○명		차장~과장	경력 5년 이상	토목현장 안전관리	
본 사	영업,업무	○명		부장~과장	경력 5년 이상	본사 수주 및 영업관리업무	광주광역시 서구
	기획	○명		부장~과장	경력 5년 이상	본사 공무 및 공사관리업무	
	회계	○명		부장~과장	경력 3년이상	법인결산/세무 신고 재무관리 전반	

2.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5. 10. 15(목) ~ 10. 23(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10. 24(토) 개별통보
• 면 접 : 2015. 10. 26(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10. 30(금)

3. 전형방법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면접(필요시)
4. 자격 및 대상 각종 부문 경력자 우대
5. 제출서류 이력서 1통(자유양식), 자기소개서 1통,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자격증 사본 1통
6. 서류접수처 엔에스종합건설㈜ 경영관리부 daikyo2000@daum.net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NS종합건설